

광주, 양자사업 최적지... 光산업 기반·연구 인프라 풍부

광주시, 양자산업 육성 위한 세미나 개최... 비교우위·실행과제 점검 “디지털 퀀텀시대 전환 이끔 동력...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확보 힘써야”

국내 최대 광산업 집적과 실증 인프라를 지닌 광주가 통신·센서 중심 양자산업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양자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에 광(光)융합 기반 위에 테스트 베드(실증시설)와 인력·자본을 얹어 산학연관 윈윈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양자클러스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에서 ‘광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광주의 비교우위와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양자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0년 전망의 ‘국가양자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과 상용화 촉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지역 단위의 실증·표준·인력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영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양자기술활용센터장은 “양자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기술이며, 디

지탈에서 퀀텀시대로 전환을 이끔 산업 전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2024년 전 세계 양자기술 투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양자컴퓨팅 시장은 2025년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본이 2025년 상반기에만 74억 달러를 양자기술에 투자하는 등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와 1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핵심기술 고도화,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구축,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력 및 네트워크 확장 등 4대 전략을 통해 2030년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자암호통신(QKD) 기술의 경우 “100km 거리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픈랩 제공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한국광기술원 ICT융합본부장은 “광주는 연구기관과 장비, 광융합기업과 전문인력이 집적돼 광 포토닉스 기반의 양자통신(QKD)·양자센싱을 제품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진단

? 양자산업
양자산업은 컴퓨터, 통신, 센서 등에 적용돼 미래산업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양자역학에 기반한 양자기술(산업)은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크, 양자암호, 양자센서, 인공지능 등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했다. 실제 광주는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학교 등 연구 인프라와 600여 개의 광융합 기업, 27년간 축적된 광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광주 양자클러스터 구상에 대해서는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산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인프라로는 초전도·반도체 큐비트 개발 연구센터, 장거리 QKD·양자센서 실증 테스트 베드, 산학 공동 교육훈련시설 등을 제시했다.

국내 대표 광통신기업 ㈜우리로의 신동선 연구개발본부장은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싱 관련 보유 기술의 적용 결과를 소개하면서, “양자기술은 ICT·보안·의료·국방 등으로 확장성이 크고, 광자가 가진 산업 인프라와 결합할수록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장비투자와 공정 안정화 비용이 부담이어서, 지역 개방형 인프라를 활용한



17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본부에서 열린 ‘광주 양자산업 육성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전문가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공동 시험·검증과 수요기관과의 조기 실증 설계가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순두영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광주는 광산업 기반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할 최적지라며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인증 체계, 실증장 조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성과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AI 모빌리티 신도시로 도약... 비전·실행 방안 마련 나서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대도시권 조성을 위한 AI 모빌리티 신도시 구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규택 의원,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핵심 공약인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광주 비전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강 시장은 주제발표에서 “광주는 국내 제2의 자동차 도시이자 AI와 모빌리티가 결합한 혁신 실험장”이라며 “AI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해 시민의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으로 규제프리존 성격의 메가센드박스 구축, 완전자율주행 실증 국가 인프라 조성, 호남권 모빌리티 산업 확장, RE100 산단 조성, 광주 연구개발특구·광주송정역·빛그린·미래차산단·영광을 잇는 신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자율주행AI 삼각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AI데이터센터를 갖춘 광주가 실증에 가장 유리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빌리티 대전환(MX)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도 “광주는 AI 인프라와 완성차 공장, 수백 개 부품기업을 보유한 도시”라며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 분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진중욱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는 정책 의지와 범정부 협력이 필수”라며 “광주는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실증·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는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AI와 융합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고 숙련 기술인 ‘전남도 명장’ 찾습니다

도, 30일까지 38개 분야 모집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2025 전남도 명장’을 모집한다.

전남도 명장은 기계설계, 선박·항공, 정보기술, 디자인, 조리 등 38개 분야(92개 직종)에서 최고 전문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명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분야 도내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일한 15년 이상의 기술인이다. 또 기술 숙련도가 높고 종사하는 분야 발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기술인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인원은 5명으로, 전남도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면접심사를 거쳐 전남도 명장을 최종 선정한다. 전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칭호와 증서와 현금이 수여되며, 연간 100만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술인은 전남도청 동부청사 중 소벤처기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순천시 해룡면 대안로 16, 2층 중소벤처기업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돌발해충 확산 비상... 전남도, 해충 방제 총력

전남의 가을 들녘이 해충 방제로 비상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산림과 농경지에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쓰고 있다.

돌발해충은 특정 시기나 장소와 무관하게 갑자기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외래해충으로, 최근 기상이상이나 농업환경 변화, 작물 재배 방식의 다양화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차 조사를 거쳐 56ha에 걸친 피해를 확인했다. 또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지역(336ha), 미국선녀벌레 발생지(58ha) 등 총 404ha에 대한 방제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감·사과·매실나무 등에 그을음병을 유발, 작물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미국선녀벌레는 대추·밤나무 잎 등을 갉아 먹어 작물 생육을 저해한다.

전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까지 2차 예방·방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글로벌 에너지포럼서 에너지 대전환 해법 모색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가 17일 나주 컨벤션에서 막을 울리며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모색했다.

개막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박진호 컨벤션 총장직무대행, 정치교 한전

부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에너지 수도 전남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DDD(분산·직류·디지털 AI)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18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17일 기조강연에서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미래를 위한 소재”를 주제로 나서, 그래핀을 비롯한 첨단

신소재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에너지가 지역의 기회가 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분권형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주최 광진구 | 주관 광산문화센터 | 후원 광주광역시 광진구의회

제35회

어동미술대전

회화 2025. 9. 18.(목)~ 9. 19.(금) 평소 기간

서예·문인화 2025. 9. 22.(월)~ 9. 23.(화) 평소 기간

공모분야 회화, 서예(한문/한글/먹글씨(캘리그래피)), 문인화

시상내역

어동대상	3명	각 3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100만원
우수상	0명	각 50만원
특별상	0명	각 20만원

출품수 1인 2점 이내

출품료 회화 1점 : 2만원 | 2점 : 3만원
서예·문인화 1점 : 3만원 | 2점 : 5만원

접수방법 회화 작품이미지 파일 온라인접수
서예·문인화 실물 작품 접수(방문 또는 우편)

시상식 일 시 : 2025. 11. 13.(목) 11:00
장 소 :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접수문의] 광산문화원 사무국 T 062)941-3377
자세한 사항은 개최요강 및 누리집 참조 (http://gjgwangsan.kccf.or.kr/)